

동일 원문 한영 소설 번역문 간 화법 번역 차이 연구*

이 창 수
(한국외대)

1. 연구목적 및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소설의 영어 번역에서 화법 번역 방식의 차이가 번역 소설의 구조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 연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황순원 작 『나무들 비탈에 서다』라는 소설의 영어 번역서 두 종간 화법 번역 차이를 정량분석한 후 사례분석을 통해 그와 같은 차이의 문체적 효과를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두 종의 영어 번역문은 1980년에 출판된 장 왕록(Chang Wang-rok) 역 *Trees on the Cliff*와 2005년에 출판된 브루스 풀턴(Bruce Fulton)과 주찬 풀턴(Ju-Chan Fulton) 공역 *Trees on a Slope*이다. 논의 편의상 전자를 TT1980, 후자를 TT2005로 부르기로 한다.

본 연구는 위 두 영어 번역서를 대상으로 최빈도 어휘와 3단어 연쇄의 발생빈도 분석을 통해 문체의 차이를 연구한 이전 연구의 후속 연구로 기획되었

* 본 연구는 2016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다 (이창수 2015a, 2015b). 이전 연구에서는 두 번역문간의 문체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주성분분석이라는 다차원통계분석을 통해 두 번역문 간에 빈도 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어휘와 3단어 연쇄를 식별한 후 그러한 차이가 두 번역서의 문체 특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논하였다. 두 연구의 분석 결과는 TT1980에 비하여 TT2005의 문체가 훨씬 간결하며 역동적이라는 점에서 일치하였다. 두 연구에서 발생 빈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 어휘 중 하나가 *that*이었다. *that*은 지시대명사 및 관계대명사 절을 이끄는 관계사로 사용되지만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말의 내용을 담은 인용절을 앞에 쓰여 간접화법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두 연구에서 드러난 *that* 인용절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먼저 최빈도어휘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that*과 어울리는 언어를 분석한 결과 [*he* + (SAY류 동사) + *that*] 형태의 구문에서 *that* 발생건수는 TT1980은 101건, TT2005는 59건으로 TT1980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3단어 연쇄 분석 연구에서도 *to him that*, *that he had*, *that it was*, *that she was* 등 *that* 인용절의 일부인 것이 확실한 문형의 발생빈도 역시 TT1980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종속절이나 내포절 등 복합문을 많이 사용하는 TT1980이 상대적으로 문체가 복잡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that* 인용절은 곧 간접화법의 사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TT1980에서 이런 형태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한 점은 등장인물의 말이나 생각을 전달하는데 있어 TT1980은 간접화법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TT2005는 그만큼 다른 화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소설에서 화법은 등장인물의 말과 생각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효과가 발생한다 (리치와 쇼트(Leech & Short) 2007; 세미노와 쇼트(Semino & Short 2004); 툴란(Toolan) 1996, 2006, 2008). 따라서 두 번역문 간 화법 활용의 차이는 번역 소설 세계 형성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화법 번역의 차이는 서술자와 등장인물 중 누구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가 하는 ‘마인드 스타일(Mind Style)’에서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등장인물의 생각을 전달하는 상황에서 원문과 비교하여 두 번역문 간에 화법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와 같은 차이가 어떤 효과를 야기하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2. 영어 소설의 화법 종류와 번역관련 선행 연구

영어에서 화법 연구는 주로 문학작품을 대상으로 이뤄져왔다. 영어 화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연구만 들자면 먼저 리치와 쇼트가 1981년도에 저술한 *Style in Fiction*이라는 단행본을 들 수 있으며, 2007년도에 개정판이 출판되었다. 이 책자에서 저자들은 말과 생각의 표현(Speech and Thought Representation)이란 장에서 화법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였다. 또한 툴란(1996, 2006, 2008)도 영어 소설의 여러 특징을 설명하면서 화법을 중요한 주제로 다뤘다. 세미노와 쇼츠(2004)는 실제 코퍼스에 화법의 종류별로 주석을 달아 정량분석을 시도하였다.

리치와 쇼트(2007: 271)의 예문을 이용하여 영어의 화법의 종류를 설명하면 먼저 예문 (1)에서처럼 등장인물의 말/생각을 등장인물의 말로 직접 전달하는 직접화법(Direct Discourse: DD)과 예문 (2)와 같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간접화법(Indirect Discourse: ID)으로 나눌 수 있다. DD와 ID에는 인용절 외에 인용된 말/생각의 주제와 말/생각을 행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전달절(reporting/framing clause)’이 있다. 예문 (1), (2)에서 “He wondered”가 여기에 해당한다.

- (1) He wondered, ‘Does she still love me?’
‘그녀는 아직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라고 의아해했다. (DD)
- (2) He wondered if she still loved him.
그는 그녀가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있을까 의아해했다. (ID)
- (3) ‘Does she still love me?’
‘그녀는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 (FDD)
- (4) Did she still love him?
그녀는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있을까? (FID)
- (5) He wondered about her love for him. (NRDA)
그는 그에 대한 그녀의 사랑에 대하여 의아해했다.

예문 (1)에서 전달절을 생략하고 예문 (3)과 같이 직접 인용절만 남겨 놓은 상태는 자유직접화법(Free Direct Discourse: FDD)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예문 (2)에서도 전달절을 생략하고 예문 (4)와 같이 직접 의문문 형태로 바꿔 표현하는 방식은 자유간접화법(Free Indirect Discourse: FID)이라고 한다. 예문

(3)과 비교하여 예문 (4)는 시제와 대명사가 등장인물 화자 시점(현재시제, me)에서 서술자 시점(과거시제, him)으로 바뀌지만 직접화법의 의문문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등장인물 화자의 직접적인 생각처럼 읽혀지는 특징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FID는 DD와 ID를 섞어놓은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예문 (5)와 같이 등장인물의 말/생각의 구체적 내용은 생략하고 생각하는 행위와 그 주체만을 간략하게 언급하는 담화행위 서술적 전달 방식(Narrative Report of Discourse Acts: NRDA)이 있다.

위에서 표기한 DD, ID, FDD, FID, NRDA에서 맨 끝에 D는 담화(discourse)를 뜻하는데 실제 소설에서는 D는 말(speech: S)이나 생각(thought: T)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D를 각각 S, T로 대체하면 DS, IS, FDS, FIS, NRSA, DT, IT, FDT, FIT, NRTA 등 총 10개의 화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화법의 중요성은 여러 측면에서 논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점은 어떤 화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서술자가 소설 속 등장인물의 말이나 생각을 통제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문 (5)의 NRDA의 경우는 등장인물 생각을 전달하는데 있어 서술자가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 그에 비하여 예문 (5), (4), (1)에서 서술자의 통제권은 부분적이다. 그리고 예문 (3)에서는 서술자는 통제권을 전혀 갖지 못한다. 요약하면 등장인물의 말이나 생각의 전달에서 서술자가 갖는 통제권의 정도는 NRDA → ID → FID → DD → FDD의 순으로 약화된다(리치와 쇼츠 2007: 260). 따라서 어떤 화법을 사용하느냐는 독자 입장에서 서술자나 등장인물 중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즉 누가 말하고 생각하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톨란 1996: 117). 이와 같은 면에서 직접화법이나 자유간접화법을 많이 사용할 경우 독자는 실제 인물이 직접 말하고 생각하는 느낌을 갖게 되어 소설의 생동감(liveness)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톨란 1996: 117).

이와 같이 화법마다 기능과 효과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번역에서 번역가가 어떤 화법을 사용하여 원문의 등장인물의 말과 생각을 전달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상적으로는 원문의 화법 방식을 번역문에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 번역에선 화법의 변화가 자주 발생한다. 화법 번역에 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원문의 자유간접화법이 번역에서 어떻게 소화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앞서 소개하였듯

이 자유간접화법이 서술자의 시점과 등장인물 화자의 어투를 섞는 하이브리드 또는 ‘이중목소리’(dual voice)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를 직접화법이나 간접화법으로 변환한다면 두 목소리 중 하나를 제거하거나 회색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연구를 보면 보소(Bosseaux 2007)는 동일 원문에 기초한 여러 번역문 사이에서 원문의 자유간접화법을 보존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밀란-바렐라(Millán-Varela 2004)는 번역문에서 자유간접화법을 의미 위주 번역으로 바꿈에 따라 서술자의 존재와 통제가 상실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마찬가지로 보아스-바이어(Boase-Beier 2014)도 원문의 자유간접화법이 번역문에서 보존되지 않아 독자가 원문의 마인드 스타일이나 초점화를 재구성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정량분석을 중심으로 하되 예문을 심층 분석하는 사례분석을 추가하였다. 먼저 정량분석에서는 수작업에 의한 분석법을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코퍼스에서 모든 화법 종류를 자동적으로 검색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간접화법이나 직접화법 같은 경우 that 인용절에 사용되는 that 접속사나 직접 인용부호 [“]를 검색어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가령 that의 경우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간접화법 문장을 찾아낼 수 없다. 또한 간접화법 중 생각을 표현하는 IT(간접생각표현)의 경우는 ‘He wondered if ... (그는 ...지 않은지 의아해했다)’와 같이 that가 아닌 if 또는 wh-의문사 같은 것이 사용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고 그에 따라 관계없는 표현, 즉 노이즈가 검색될 가능성이 늘어난다. 직접 인용부호를 검색어로 사용한다고 해도 작가에 따라 말이나 생각을 직접 표현하는 DS, DT에서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인용절 뒤에 앞서 언급한 전달절이 뒤따르는가에 따라 직접화법과 자유직접화법으로 나뉘지기 때문에 검색결과를 다시 수작업으로 분류해야 한다. 게다가 일정한 형태 표지가 없는 자유간접화법의 경우는 해당 표현을 모두 자동적으로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화법 번역 연구는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방

법이 가장 정확하고 현실적이다.

다만 수작업 분석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기 때문에 분석 데이터의 양을 크게 늘릴 수 없다는 제약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 데이터양을 총 17장으로 구성된 원문의 첫 5장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임의적 결정이지만 생각 표현이 자주 나타나는 표현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량 분석에 필요한 최소 적정 발생빈도를 확보할 수 있는 선에서 분석 데이터양을 선택하였다.

정량 분석 후에 여기서 발견된 화법 번역 차이의 실제 효과를 심층 분석하기 위하여 정성분석을 활용한 간단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번역 연구 방법 면에서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은 상대적 장단점을 논할 수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두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도 연구 목적과 질문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990년대에 일련의 논문을 통하여 번역연구에 코퍼스 언어학을 접목시키는 흐름의 물고기를 뜬 베이커(Baker 1993, 1995, 1996, 1999)가 정량분석을 통해 패턴이나 규칙을 발견하려는 코퍼스 연구방법이 개별 번역사의 창의적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번역 연구도 번역문의 일반적 특징과 구체적 특징, 규범과 예외란 두 축 간에 합리적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Baker 1996: 179). 특히 본 연구와 같이 특정 번역전략의 효과를 논하기 위해선 문맥을 고려한 심층 분석은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1) 원문과 번역문간 상호 비교의 용이성을 위하여 LF Aligner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원문과 두 번역문 등 3 종의 텍스트를 문장 단위로 연결하는 정렬(alignment) 작업을 실시하였다. 작업 결과에선 잘못된 문장끼리 연결되는 오류가 다수 발생하여 수작업으로 추가 교정하였다.

(2) 원문을 읽어가면서 등장인물의 생각을 표현하는 문장을 식별해 낸 후 별명코퍼스에서 TT1980과 TT2005의 해당 번역문을 찾아내어 엑셀에 옮겨 정리하였다.

(3) 이후 분석 범주를 DT(직접생각표현), FDT(자유직접생각표현), IT(간접생각표현), FDI(자유간접생각표현), NRTA(생각행위 내러티브 리포트), NR(내레이션), X(생략)로 정하여 엑셀에 범주를 표기하였다.

- (4) 위와 같이 분류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 등 정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 (5) 정량 분석에서 드러난 화법 번역의 차이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 결과

4.1. 원문과 번역문 간의 화법 분포의 차이

먼저 원문과 두 번역문 간에 화법의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표 1>에 정리되어있다. 이를 보면 원문 ST의 경우는 FDT와 IT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에 반하여 TT1980은 IT의 비중은 ST와 같고 FDT가 크게 줄어들면서 FIT, NR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양상을 보인다. TT2005는 원문 대비 FDT가 줄어드는 정도가 TT1980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고 대신에 IT가 크게 줄었고 FIT, NR이 늘어났다.

<표 1>의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한 통계검증은 피셔의 정확성 검정을 사용하였다. 보통 <표 1>과 같은 매트릭스 데이터에 대하여 많이 사용하는 카이제곱 검정의 경우 여기서는 기댓값이 5이하인 셀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셀 값이 작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피셔의 정확성검정을 2x2 이상의 테이블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몬테 칼로 리샘플링 방법을 통해 2,000번 반복 시행한 결과 $p\text{-value} = 0.0004998$ 로 <표 1>의 화법 종류와 코스 간에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변수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표 1> 원문, TT1980, TT2005 간 화법 분포 (발생건수)

		코스		
		ST	TT1980	TT2005
화법 종류	DT	2	3	1
	FDT	15	2	6
	IT	11	11	5
	FIT	0	7	8
	NR	1	6	7
	X	0	0	2

세 텍스트 간 화법 분포 차이를 좀 더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표 1>을 모자이크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 1을 보도록 하자. 이 그래프에서 각 상자의 크기는 실제 발생빈도의 상대적 비율을 보여준다. 따라서 상자 크기가 클수록 해당 화법의 비중이 높은 것이 된다. 또한 카이제곱 검정의 기초가 되는 피어슨 잔차에 따라 잔차 절대값이 +2, -2보다 큰 경우 ST와 TT1980의 FDT 상자처럼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채워진다. 이는 해당 상자가 통계적 유의치에 핵심적 기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표 1>의 경우 카이제곱 검정은 신뢰하기 힘들지만 이미 피셔의 정확성 검정을 통해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였기 때문에 피어슨 잔차는 데이터의 분포와 차이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용으로 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림 1 <표 1>의 모자이크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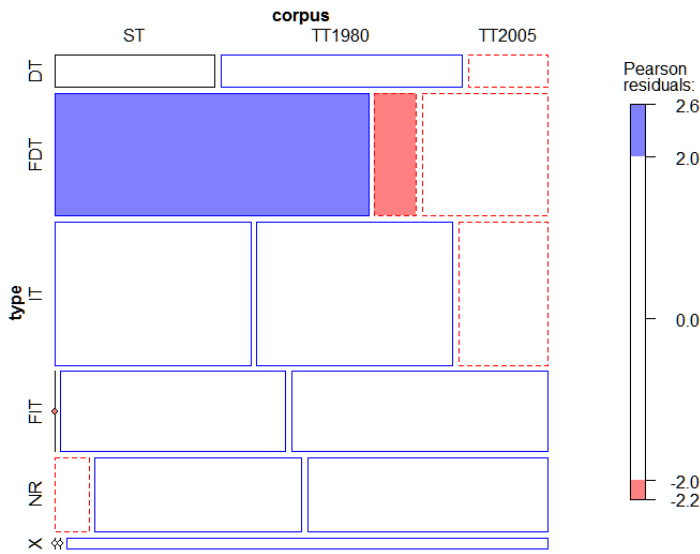


그림 1로 돌아가 보면 세 텍스트 중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화법은 FDT, IT, FIT 등이다. FDT의 경우는 ST에 비하여 TT1980, TT2005에서 크게 줄어드는데 그 정도는 TT1980이 훨씬 크다. 특히 ST의 FDT가 파란색으로, TT1980은 빨간색으로 채워져 있다. 이는 ST의 경우는 실 관찰치가 변수 간 상관관계

가 없다는 가정하의 기대치보다 훨씬 높고 반대로 TT1980은 훨씬 낮아서 세 텍스트 간의 차이가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DT는 예문 (6)과 같이 등장인물의 생각을 등장인물의 말로 직접 전달하지만 누가 생각하는지를 설명하는 전달절이 빠진 형태이다. 물론 바로 앞 문장에 ‘동호’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독자는 생각의 주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없다. 그러나 해당 문장을 읽는 순간은 동호가 자신의 목소리로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이는 서술은 과거형인데 인용문은 현재형으로 표시된 것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이에 비하여 TT1980은 해당 ST문장을 과거형으로 표시하여 앞에 ‘Dongho thought ...’로 시작되는 전달절에 연결된 간접인용문처럼 보인다. 그러나 읽는 독자에 따라선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was going to’란 표현이 사용되었고, ‘Dongho thought ...’와 문법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호가 자신의 판단을 과거에 직접 말하는 것을 듣는 듯한 느낌도 있다. 따라서 여기선 자유간접화법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반하여 TT2005는 that 절을 사용한 완벽한 간접화법문장이다. 이와 같이 두 번역문에서 원문의 FDT와 다른 화법을 선택 함으로써 FDT 비중이 크게 줄어 든 것으로 보인다.

(6)

ST: 동호는 현태가 지금 산 밑으로 내려가는 목적을 알 것 같았다. 여인을 없애버리러 가는 것이다.(FDT)

TT1980: Dongho thought he knew why; Hyontae was going to dispose of the woman. (FIT)

TT2005: Tongho had a hunch that Hyontae would do away with the woman. (IT)

그림 1에서 다음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IT 즉 간접화법이다. 이 경우 ST와 TT1980은 동일한 숫자를 보여준다. 즉, IT의 비중 면에서 차이가 없다. 그렇다고 ST의 모든 간접화법을 TT1980이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체 빈도에서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일 뿐이다. 이에 비하여 TT2005는 IT의 비중을 크게 줄였다. 그만큼 다른 화법으로 바꾼 셈이다. 예문 (7)을 보면 ST는 ‘-나 하는 생각에...’란 구문에서 생각을 설명하는 인용절이 간접화법 형태로 나타난다. TT1980도 ‘..suspicion that ...’에서 that 인용절을 사용한 간접화법을 선택하

였다. 원문과 동일한 구조이다. 이에 반하여 TT2005는 인용절을 풀어 안의 내용을 과거형 의문문의 형태로 전달하고 있다. 과거 시제와 ‘them’이란 3인칭 대명사가 서술자의 시점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의문문의 형태가 등장인물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느낌을 준다. 원문의 간접화법을 FDT와 IT가 혼합된 FIT 형으로 바꾼 경우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ST에는 없는 FIT가 양 번역문에서 비슷한 숫자로 늘어난 특징이 있다. 예문 (7)의 TT2005처럼 원문과 다르게 FIT를 선택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7)

ST: 이 괴괴한 어느 지점에서 혹시 누가 자기네를 줄곧 감시나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어떤 말 못할 압박감이 엄습해왔다. (IT)

TT1980: They were seized by a disconcerting suspicion that someone might be watching them from a hiding place in this strangely silent place.

(IT)

TT2005: Was someone in this deserted place watching them? (FIT) The mere thought brought a sense of unspeakable oppression.

마지막으로 원문의 인용절을 번역에서 내레이션의 일부로 바꾼 경우가 양 번역문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예문 (8)을 보면 ST의 밑줄 친 부분은 동호란 주인공이 과거를 연상하는 내용으로 등장인물 자신의 말로 전달된다. 전달절이 없기 때문에 FDT에 해당한다. 이 부분을 TT1980와 TT2005는 모두 일반적인 서술문의 일부로 전달하고 있다.

(8)

ST: 함박눈이 내리는 해운대 어느 호텔에서 밤을 새우다시피 한 일. 그때 입 언저리가 얼얼하도록 입술을 맞비벼댔건만. (FDT)

TT1980: Large snowflakes had been falling when they were together at a hotel at Haeundae Beach in Pusan the night before he joined the army.

They kissed until their lips almost hurt. (NR)

TT2005: Two years earlier, he and Sugi had spent a snowy night at a hotel at Haeundae Beach the day before he had left for the army. They had kissed until their mouths were numb. (NR)

4.2. 양 번역문 간의 번역전략의 차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ST의 어떤 화법이 번역문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분석해기로 한다. <표 2>를 보면 두 번역문의 번역 유형별 발생 빈도가 나와 있다. 이 표를 보면 양 번역문 간 차이는 원문의 IT와 FDT를 번역하는 방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먼저 IT 번역 양상을 보면 TT1980의 경우 ST의 IT를 그대로 유지하는 번역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ST에서 IT는 11개 인데 그 중에 8개(73%)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원문의 간접화법을 바꾸는 것 보다는 보존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표 1>과 그림 1에서 ST와 TT1980 간에 IT 발생 빈도가 동일한 것은 번역 과정에서 ST의 IT를 유지한 것이 가장 큰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TT2005의 경우는 ST의 IT를 보존한 수는 4개(36%)로 TT1980와 달리 대부분의 원문 IT를 바꾼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IT를 FIT로 바꾼 것이 5개(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FIT는 간접적으로 등장인물의 생각을 서술로 끌고 들어오는 화법이기에 때문에 이러한 번역전략은 독자로 하여금 등장인물의 생각을 직접 듣는 것 같은 생동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톨란 1996: 117). 같은 이유에서 원문의 간접화법에 비하여 인용절에 대한 서술자의 통제도 약화되는 효과가 있다.

<표 2> TT1980, TT2005 간의 번역 방식 비교

	TT1980	TT2005
DT→DT	1	1
DT→IT	1	0
DT→FIT	0	1
FDT→DT	2	0
FDT→FDT	2	5 *
FDT→FIT	5 *	2
FDT→IT	1	1
FDT→NR	5 *	5 *
FDT→X	0	2
IT→IT	8 *	4
IT→FIT	2	5 *
IT→NR	1	2
NR→IT	1	0

이번에는 원문의 FDT, 즉 전달절이 없는 자유직접화법의 번역 양상을 살펴 보자. 먼저 TT1980에서는 FDT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15개 중 2개(13%)에 지나지 않는다. 그 대신에 FDT를 FIT로 바꾼 것이 5개(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반하여 TT2005는 FDT를 유지한 것이 5개(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략이다. FDT를 NR 즉 내레이션으로 바꾼 경우는 양 번역에서 동일한 숫자가 나왔다. 따라서 FDT 번역의 경우 양 번역문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결국 FDT를 FIT로 바꾼 것과 그냥 유지한 것의 차이로 귀결된다. FDT는 전달절이 없기 때문에 서술자의 통제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등장인물이 생각을 자신의 말로 독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매우 생동감 있는 화법이다. 그에 비하여 FIT는 직접화법의 느낌을 어느 정도 유지하지만 시점이 서술자의 시점으로 바꾸기 때문에 생동감은 줄어들고 서술자의 통제가 커진다. 이에 비하여 TT2005에서 원문의 FDT를 더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것은 원문의 생동감을 그만큼 살려주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양 번역문의 번역방식 차이의 효과는 독자가 등장인물의 생각을 직접 자신의 말로 전해듣는 생동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원문에선 FDT가 전체 인용문의 29개 중 15개(52%)를 차지할 만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법이다. 즉, 등장인물의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할 때 절반 이상을 서술자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전히 등장인물 자신의 말로 전달하고 있다. 그만큼 원문을 읽을 때 독자는 등장인물이 자신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생동감을 느낀다. TT1980은 FDT를 FIT로 바꾸는 번역전략을 통해 이와 같은 생동감을 줄이는 선택을 한 셈이다. 이와 반대로 TT2005는 TT1980보다 원문의 FDT를 더 많이 보존하려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이와 더불어 원문의 IT를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FIT로 바꿈으로서 전체적으로 TT1980보다 더 생동감 있는 번역을 지향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4.3. 번역전략 차이가 가져오는 효과에 대한 사례분석

이번에는 바로 앞 절에서 발견한 두 번역문 간의 화법 번역전략의 차이가 야기한 생동감의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문을 통해 심층 분석해 본다. 이와 같은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은 예문 (9)에 나와 있는 소설의

도입부이다.

(9)

ST: 이진 마치 두꺼운 유리 속을 뚫고 간신히 걸음을 옮기는 것 같은 느낌이로군. (FDT) 문득 동호는 생각했다. 산밑이 가까워지자 낮 기운 여름 햇볕이 빈틈없이 내리부어지고 있었다. 시야는 어디까지나 투명했다.

TT1980: It suddenly seemed to him that he was working his way through a huge block of glass. (IT?) As he moved closer to the foot of the mountain, the foil sun of the late summer afternoon poured down. The view in all directions was limitless.

TT2005: LIKE WALKING through a big hunk of glass. (FDT) Feet don't want to move. (FDT) The afternoon sun beat down relentlessly as they neared the foot of the mountain. Unlimited visibility. (FDT)

먼저 원문을 보면 첫 문장에서 동호의 생각을 자신의 말로 전달하면서 시작된다. 그 뒤 문장에서 생각의 주체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를 일반적인 직접화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문장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뒤의 문장을 일반적인 전달절로 취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또한 독자 입장에서는 첫 문장은 완전히 서술자의 개입이 없는 순수한 등장인물의 말로 읽히지기 때문에 일단 FDT로 분류하였다. 원문의 저자는 소설의 첫 문장을 등장인물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내면적 판단을 자신의 말로 직접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소설 첫마디에서부터 독자를 사건의 현장 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노렸다고 할 수 있다.

TT1980은 이와 같은 소설의 첫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바꾸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원문에서 독자가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효과가 사라졌다. 따라서 독자가 사건의 현장에 끌려 들어가는 긴장감이 사라지고 이야기는 처음부터 서술자가 사건을 제 3자적 입장에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TT2005는 원문과 같이 FDT 방법을 택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원문 첫 문장을 두 개의 짧은 문장으로 나눔으로서 두 개의 FDT 문장을 만들고, 첫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생략된 전치사구만으로 구성하여 등장인물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전해듣는 느낌을 준다. 또한 원문에 있는 ‘동호가 생각했다’는 전달 문장을 제거함으로써 독자는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더욱 긴장감을 갖게 된다. 게다가 마지막 문장은 원문에선 내레이션인데 이를 FDT

로 전환하였으며 단순한 명사구를 사용하여 등장인물의 생각을 그대로 전해주는 느낌을 더욱 강조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원문보다 생동감과 긴장감이 더 큰 도입부를 만들었다.

결국 두 번역문은 내용은 비슷하지만 독자 입장에서 읽는 맛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설 도입부가 시작된다. 또한 앞선 정량 분석의 결과를 볼 때 이와 같은 차이는 단순히 도입부뿐만 아니라 소설 전체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것으로 여겨진다.

5. 맺는 말

앞 장의 정량분석 및 사례분석의 결과는 소설 번역에서 화법 번역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결국 소설 번역에서 화법 번역은 생각이나 말을 하는 주체인 등장인물과 이를 전달하는 서술자의 목소리 중 누구의 목소리를 더 크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TT1980과 같이 서술자의 목소리와 존재를 더 드러낼 것인가 아니면 TT2005처럼 서술자의 존재감을 줄이고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데 더 비중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번역사의 선택에 따라 독자가 소설을 읽는 느낌, 더 나아가 독자가 머릿속에 재구성하는 소설 세계 및 마인드 스타일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번역사는 화법 번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번역방식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번역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이창수 (2015a) 「최빈도 어휘를 활용한 동일 원문의 번역물 간 번역문체 연구」, 『번역학연구』 16(2): 187-205.
- 이창수 (2015b) 「n-gram 분석을 활용한 황순원 작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두 번역문 간 문체 차이 연구」, 『통번역학연구』, 19(2): 1-19.
- Baker, Mona (1993) ‘Corpus Linguistics and Translation Studies: Implications

- and Applications’, in Mona Baker, Gill Francis and Elena Tognini-Bonell (eds) *Text and Technology: in honor of John Sinclair*, Amsterdam: John Benjamins, 233-250.
- _____ (1995) ‘Corpora in Translation Studies: an Overview and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Target* 7: 223-243.
- _____ (1996)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 Challenges that Lie Ahead’, in Harold Somers (ed.) *Terminology, LSP and Translation, Studies in Language Engineering in Honour of Iuan C. Sager*, Amsterdam: John Benjamins, 175-186.
- _____ (1999) ‘The Role of Corpora in Investigating the Linguistic Behaviour of Professional Transla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Corpus Linguistics* 4(2): 281-298.
- Boase-Beier, Jean (2014) ‘Translation and the Representation of Thought: The Case of Herta Müller’, *Language and Literature* 23(3): 213-226.
- Bosseaux, Charlotte (2007) *How Does it Feel: Point of View in Translation: The Case of Virginia Woolf into French*, Amsterdam: Rodopi.
- Leech, Geoffrey and Mick Short (2007) *Style in Fiction: A Linguistic Introduction to English Fictional Prose*, second edition, Harlow, UK: Pearson Education.
- Millán-Varela, Carmen (2004) ‘Hearing Voices: James Joyce, Narrative Voice and Minority Translation’, *Language and Literature* 13(1): 37 - 54.
- Semino, Elena and Mick Short (2004) *Corpus Stylistics: Speech, Writing and Thought Presentation in A Corpus Of English Writing*, London: Routledge.
- Toolan, Michael (1996) *Language in Literature: An Introduction to Stylistics*, London: Routledge.
- _____ (2006) ‘Speech and Thought: Representation of’, in Kieth Brown (ed.)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Amsterdam: Elsevier Science, 698-710.
- _____ (2008) ‘Narrative Progression in the Short Story: First Steps in a

Corpus Stylistic Approach', *Narrative* 16(2): 105-120.

[Abstract]

**A Study of Differences in Transalation of Thought Representations
between Two English Translations of a Korean Novel**

Lee, Chang-Soo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looks at differences in the way two English translations of a Korean novel translated thought representations in the original from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erspectives. The first five chapters of the Korean original and the comparable portions of the English translations were analyzed for this purpose after aligning them at sentence level for easier search and cross-reference. The quantitative analysis revealed that one of the two translations tended to strip the ST of its strong penchant for free direct representation, which relays the character's thought directly in his/her own words without the reporting clause. In sharp contrast, the ST's preference for free direct representation was more preserved in the other translation, which also tended to give greater voice to characters by switching indirect to free direct or free indirect representation in reporting their thoughts. As a result, the latter version came out more 'lively' in character representation than the former. This effect is illustrated by an in-depth analysis of the introductory passage of the original and the two translations.

▶ Key Words: corpus-based translation research, Korean-English literary translation, translation of speech and thought representations, parallel corpus, Hwang Soon-won

이창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soolee@hanmail.net

관심분야: 코퍼스번역연구, 컴퓨터문체분석, 비평담화분석, 체계기능언어학

논문투고일: 2016년 10월 31일

심사완료일: 2016년 11월 30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7일